

강진군도서관, 수어교실 ‘손으로 말해요’ 수강생 모집

7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강진군도서관은 청각·언어 장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추진되는 수어(手語) 교육 프로그램인 ‘손으로 말해요’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어(또는 수화)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몸짓과 손짓을 통한 의사전달 방법이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다.

이번 수어교실은 7월 23일부터 10

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시간씩 강진군도서관 어울림방에서 열린다.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은 강진군수어통역센터 황근혜, 문지영 강사가 진행한다. 인사별, 가족소개, 약속 정하기, 교통 및 통신 등 일상생활 관련 단어와 표현을 익혀 일상에서 청각 장애인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기간 중 총 12회 수업에서 80% 이상을 수강할 시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어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월 17일까지 강진군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orangsebi@korea.kr)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도서관(061-430-3834)과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gilib.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군도서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강진군수어통역센터와 함께 작년부터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문환 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소통을 돕는 한편 장애인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수완동 명예복지공무원단, 복지사각지대 해소

25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단장 김기순)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돌봄이웃 살피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순 단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살피고, 희

망의 전화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단원들은, 동 지사협 위원, 통장, 복지매니저 등 121명으로 구성되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광주 광산구 신흥동 지사협, ‘전등 리모컨’ 설치

27일 광주 광산구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경옥)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 가정 100세대를 지원하는 전등 리모컨 설치사업에 들어갔다.

전등 리모컨은 무선 송수신기가 든 전등을 원격 조정기를 이용해 켜고 끌 수 있는 장치.

지난해 연말부터 이웃돕기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난월부터 사전조사를



거쳐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이달 5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탄력을 받았다. 임형택 기자

장흥군, 통합 건강 프로그램 ‘건강일터 2호점’ 운영

오는 11월까지 장흥지역자활센터서 운동교실 등 진행

장흥군은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 건강일터 2호점(1호점 대덕읍)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 통합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강일터 2호점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운동교실, 건강교육강좌, 건강환

경조성 등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건강계단 환경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직장내 운동교실 프로그램 또한 관내 운동강사 초빙 및 시작전 체온측정,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활센터 직원들의 희망 설문으로 선정된 줘바댄스와 요가 운동교실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일터를 통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생활실천을 향상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경증 치매인 인지기능 향상 위해 1:1 돌봄활동 제공

치매안심마을·기억키움마을 어르신 25명 대상

곡성군이 치매안심마을과 기억키움마을의 경증치매 어르신 25명에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1:1 돌봄활동을 시작했다.

돌봄활동은 치매인지 지도자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통합관리 사업으로 주 2회 1시간씩 3개월간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지치료 워크북과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인

지기능 향상을 위한 1:1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1:1 돌봄을 받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마을 경로당이 폐쇄돼서 집에서 적절하게 있었는데 돌봄활동 덕분에 허전함이 메워진 것 같다. 공부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측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만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돌봄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